

SKT, 부산국제모터쇼서 UAM 선보인다

2030년 부산하늘 나는 에어택시 로봇팔 시뮬레이터로 가상 체험 국토부 '드론·UAM박람회' 참가 사업 계획 발표·전시공간 마련도

SK텔레콤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더한다. SK텔레콤은 '2022 부산국제모터쇼'와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여해 도심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UAM 서비스의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eVTOL(전기수직이착륙 항공기) 기반 교통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지상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UAM 사업자로 모터쇼 참여

SK텔레콤은 15일 오전 개막하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UAM 상용화를 추진 중인 사업자 중에서 이번 모터쇼에 참여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은 국내의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최신 전기차 라인업과 친환경 기술이 출품되는 이번 모터쇼에서 UAM 사업 목표를 소개하고 실감나는 에어택시 가상 체험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는 목표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UAM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SK텔레콤의 사업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형 로봇팔 시뮬레이터 위에 올라 UAM 항공기에 탑승해 비행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400m² 규모의 전시관 뒷벽을 가득 채운 대형 LED 스크린에는 2030년 부산시의 하늘이 광활하게 펼쳐지고, UAM 항공기가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에서 탑승객을 맞는 AR(증강현실) 이미지



SK텔레콤이 모터쇼와 드론·UAM 박람회에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서비스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SK텔레콤의 미래 UAM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과 '2022 부산국제모터쇼'의 SK텔레콤 전시관 조감도(아래 사진).

로 전환된다. 로봇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 UAM 체험은 올해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전시회 'MW C22'에서 세계 각국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출품작이다. SK텔레콤은 부산국제모터쇼 맞춤형 콘텐츠로 새롭게 준비해 국내 고객에게 선보일 방침이다.

●컨소시엄 UAM 사업계획 발표

SK텔레콤은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함께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도 참여해 국내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 역량을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드론·UAM 분야 선도기업과 기관들

이 기술 활용사례와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다. 전시·정책 포럼·관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열리는 'UAM Team KOREA 전략포럼'에서 UAM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포럼은 UAM 기업들의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들이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SK텔레콤이 참여하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UAM 운항, 관제, 인프라, 기체,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강점을 알리는 전시공간도 마련했다.

박규현 SK텔레콤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관객들이 첨단 ICT 장비들 통해 UAM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며 "SK텔



레콤은 국내 UAM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유플러스, U+tv 콘텐츠 경쟁력 강화

LG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 'U+tv'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U+tv 자체 운영 채널(234번)을 통해 9일 세계 최고 역사를 지닌 영국 테니스 대회 '윔블던 챔피언십'의 여자 결승전을 중계한 데 이어, 10일에는 남자 결승전을 독점 중계했다. LG유플러스는 또 19일 개최하는 국내 최초 오리지널 스트리밍 시리즈 대상 시상식 '제1회 청룡시리즈 어워즈'의 후원사로 참여해 TV 독점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U+tv 채널과 공식 유튜브 채널 'U+tv 이모티콘', 강남역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일상비밀상의틈'에서 실시간으로 시상식을 시청할 수 있다.

KT, 양자암호 전용회선 서비스 출시

KT가 양자암호 전용회선 서비스를 1일 출시하고, 공공 분야와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B2B(기업간거래)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자암호 통신은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담아 암호화해 전송하는 차세대 보안 통신 기술이다. 송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고, 해킹 시도에 노출되면 신호 자체가 왜곡·변질돼 원본 해독이 불가능한 등 보안성이 뛰어나다. KT의 양자암호통신 전용회선 서비스는 양자 키분배장비(QKD) 방식으로 통신 암호화를 구현했다. 특히 기존에 도입한 KT 전용 회선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 전용 회선 전환이나 재구축 없이도 양자암호통신을 필요한 구간에 적용할 수 있다.

성장세 주춤 삼성·LG전자...하반기도 먹구름

2분기 매출·영업의 전분기 대비 감소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 부진 이어질 듯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나름 선방했지만, 성장세는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하반기다.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0.94%, 영업이익은 11.38% 증가했다. 하지만 1분기와 비교해선 매출은 1%, 영업이익은 0.85%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진 3개 분기 역대 최고치 기록도 멈춰 섰다. 세부 사업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전과 스마트폰 등의 세트 사업 부진이 발

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2분기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매출 19조 4720억 원, 영업이익 791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5.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2.0% 줄었다. 역대 최고 실적였던 1분기와 비교해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1%, 59.3% 감소했다. 주력인 가전 사업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2013년 사업 시작 이후

적자를 이어왔던 자동차 전장사업은 흑자 전환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반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악재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 실적을 받쳐왔던 반도체 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전, 모바일 등의 판매 부진도 예상된다. LG전자 역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전 사업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11인가 여름 바캉스 반값 할인

11인가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다양한 반값 상품을 준비한 7월 '월간실업절'을 11일 하루 실시한다. 오전 11시부터 '타입딜'을 통해 국내외 인기 호텔·리조트 숙박권 등 여행 상품을 한정 수량 특가에 판매한다. 또 여름 패션·잡화, 계절가전 등을 포함해 총 130여개 타입딜을 최대 50% 할인한다. 라이브 방송 'LIVE11'에서도 여름철 인기 상품이 소개된다. 오전 11시 '코카-콜라' 라이브 방송에서는 피크닉 돗자리, 머그컵 등을 증정하는 '코카-콜라 제로 캔'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 이어 돌코리아, 아이오펜, 배스킨라빈스 등이 차례로 여름 겨냥 식품과 뷰티 아이템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1일 (월) 음력: 6월 1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음주기무를 피하라.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좌측 우둘하다가 가는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민동산에 심어진 모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운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람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때마침 일회일비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교제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 침착한 자세로 머리를 써라. 황재수가 있는 날이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움츠러든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의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사가 행통하는 운이나 큰일을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때마침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기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오늘의 날씨			11일(월)
서울 70/30	인천 60/30	춘천 90/70	25 30
강릉 80/80	대전 90/60	전주 60/60	24 29
광주 70/60	대구 60/70	부산 60/60	23 28
창원 60/60	제주 70/60	지역	24 29
24 28	26 31	강수 확률 (오전/오후)	24 29
		날씨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6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계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